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4 '공감' 2번	작성자	과워문들이 님
------	--------------------	-----	---------

**[문항 1]**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대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가)~(다)는 각각 인물들이 타인의 고통과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의 서로 다른 대응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행동에 있어, (가)와 (나)의 상반되는 태도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둘과 구별된다.

우선 (가)~(다)를 바탕으로 볼 때, 3. 공감이라는 개념은 크게 '대상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행동'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다)는 모두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3. (가)의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 유대인 학살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 (나)와 (다) 역시 각각 생명력의 상실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어 대상과 그 이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가)는 2.(나),(다)의 주체들과는 달리 불완전한 공감을 하고 있다. (나)의 시적 화자는 적극적으로 대상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비둘기의 상황을 개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처지 역시 함께 개탄하게 된다. 이것은 대상과 인식 주체가 공감으로 하난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허나 아이히만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 구성원적 차원에서의 행동이 정반대로 충돌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 역시 느끼지 못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이라 평가된다. 반면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이 느낄 공포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고 있기에 (나)와 유사하다.

두 번째로는 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행동의 유무로 이들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대상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행동 역시 이와 상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라 보여진다. 3. 그러나 (가)는 유대인에 대해 온전히 공감하는데 실패하였고, 따라서 그의 행위 역시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 공감의 부재인 것이다. 반면에 (다)는 다소 특이하다. 대상에 대한 감정적 이해와, 상황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선 (나)의 화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국 뤼카온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그친 채 앞선 상황과는 모순되게 그를 죽이고 만다. 이는 아이히만의 이중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가)의 차원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했는지 모르나, 이중적 차원의 공감에 그치고 말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첨삭 포인트]**

1. 답안에 따르면 (가)는 대상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가)에서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그들을 구하려는 '실천'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오독입니다.
2. 주장에 따른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니 논리성이 떨어지며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3. 우선 공감이라는 개념을 발문에 따른 개념이 아닌, 이해와 실천의 여부로 나눈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이에 대해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이 공감을 했다가, 못했다가 계속 논조가 같은 답안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파란색들을 주의해서 다시 봐주세요)



총평	전반적으로 제시문 내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답을 서술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기반하지 않는 답안은 논리적 비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점을 명심하세요.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